

1950~70년대 북한고고학계의 청동기· 철기시대 설정과 고조선 인식

배 현 준*

국문초록

북한에서 90년대 대동강문화론을 주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고조선에 대한 일련의 주장들은 현재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이전의 연구 성과는 당시로서 나름의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개진된 연구들이었다. 특히 북한학계는 1970년대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역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곧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고고학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해방 후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석병용기의 극복과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설정이라는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50~60년대는 북한 역사학·고고학 분야 연구의 황금시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시 북한고고학계에서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청동기시대부터 고조선사 인식까지 50~70년대의 북한고고학계의 논리적 근거를 정리 및 검토하였다.

[주제어] 북한, 고고학,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고조선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인식 |
| II. 금석병용기의 극복과 청동기시대의 설정 | V. 맺음말 |
| III. 철기시대의 설정 | |

I. 머리말

90년대 대동강문화론을 주장하면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고조선과 관련된 일련의 주장들은 현재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이전의 연구 성과는 당시로서 나름의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개진된 연구들이었다. 특히 북한

*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samdoong@hanmail.net

학계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역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곧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고고학적으로 확립하는 것이었다.¹⁾ 그 배경에는 해방 후 5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금석병용기의 극복과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설정이라는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50~60년대는 북한 역사학·고고학 분야 연구의 황금시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²⁾

비록 60년대 중반~70년대 중반은 주체사상의 구현을 위한 모색기로 다양한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입각해서 60년대 이루어진 학술적 성과를 정리·보완하고 체계화한 짚막한 글들이 주를 이룬다는 비판이 있지만,³⁾ 적어도 선사고고학과 고조선사 연구에 있어서는 나름의 연구성과가 있었다. 가령, 일제강점기의 금석병용기를 극복하고 청동기, 철기시대를 설정하면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요동중심설에 기반한 고조선의 실체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시 북한고고학계에서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국내에서도 북한의 청동기, 철기시대 연구와 고조선 연구에 대해 적지 않은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청동기, 철기시대에 대한 연구사는 고고학계를 중심으로,⁴⁾ 고조선에 대한 연구사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⁵⁾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학문적 배경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⁶⁾ 북한고고학계의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설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조선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및 분석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1) 조법중,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45~73쪽.

2) 이기동, 「북한 역사학의 전개과정」, 『한국사시민강좌』 21, 1997.

3) 權五榮, 「古朝鮮史研究의 動向과 그 內容」, 『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閣, 1991.

4) 이선복, 「북한 고고학사 시론」, 『동방학지』 74 1992; 장호수, 1992, 「북한고고학의 시기 구분론」, 『백산학보』 40; 임세권, 「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 『북한의 고대사연구와 성과』,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한창균, 「195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3, 1999; 한창균, 「196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5, 2000; 한창균, 「북한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2013; 강인옥,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동북아 역사논총』 32, 2011; 이기성, 「일제강점기 ‘금석병용기’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66, 2010; 이기성, 「초기 북한 고고학의 신석기·청동기시대 구분」, 『호서고고학』 25, 2011; 이기성,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고학』 14, 2015; 이기성,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9, 2018; 이기성,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변화와 쟁점」, 『문화재』 53, 2020 등.

5) 李基東, 「北韓에서의 古朝鮮 研究」, 『한국사 시민강좌』 2, 1988; 조법중,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이기동, 위의 논문, 1997; 權五榮, 위의 논문, 1991; 조법중,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문창로, 「북한의 고대사 인식과 연구경향」, 『한국학논총』 29, 2007; 하문식,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성과와 과제」, 『고조선사 연구100년』, 학연문화사, 2009; 조법중, 위의 논문, 2011; 이경섭,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인식과 특징-리상호와 리지린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45, 2015; 이경섭, 「북한 역사학계의 고조선 종족집단 인식의 변천과 특징」, 『백산학보』 106, 2016 등.

6) 한창균, 「도유호와 한홍수: 그들의 행적과 학술 논쟁(1948~1950)」, 『한국고고학보』 87, 2013; 강인옥,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顧詰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45, 2015; 송호정,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문화사학』 44, 2015; 이경민,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설립과 북한 고조선 연구의 개시(1947~1950)」, 『선사와 고대』 45, 2015; 조법중,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와 북경대 顧詰剛교수와의 관계」, 『신라문화』 48, 2016; 이경섭,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韓國史學史學報』 36, 2017; 박준형, 「리지린의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古朝鮮의 研究』의 발견과 검토」, 『선사와 고대』 62, 2020 등.

글에서는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청동기시대부터 고조선사 인식까지 편년체계의 수립 과정에 중점을 두고 50~70년대 북한고고학계의 논리적 근거를 정리 및 검토하고자 한다.

II. 금속병용기의 극복과 청동기시대의 설정

1. 50년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일본 학자들은 김해 회현리 패총을 발굴하였다.⁷⁾ 이 유적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함께 골각기, 금속기(철기, 화폐)가 각기 다른 층위에서 출토되기는 하였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한다는 증거가 없기에 이를 동일한 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금속과 석기가 동시에 사용된 ‘금석병용기(金石併用期, aeneolithic period)’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한반도는 미개한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발달한 금속기 문화를 가진 중국과의 접촉으로 한반도에 비로소 금속기가 전파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⁸⁾

‘금석병용기’는 이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⁹⁾에 의해 구체화 된다. 그는 조선고고학의 선사·고대 시기를 석기시대 → 금석병용시대 → 낙랑대방시대 → 삼국시대의 4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금석병용시대는 한사군 설치 이전(전국시대 또는 전한대(前漢代))부터 금속문화가 전래되었지만 석기시대의 수혈주거, 패총의 축조가 여전히 계속 되며, 동검·동모와 같은 이기(利器)를 이용하고, 지석묘, 옹관 등 새로운 양식의 장법을 사용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낙랑대방시대는 금석병용시대와 일부 중복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사군(漢四郡) 설치로 인해 철기문화가 직접적으로 이식된 식민지시기의 한문화(漢文化)를 가리킨다.¹⁰⁾ 그리고 금석병용기의 시간성은 전국-진한시기의 연대와 김해 패총에서 출토된 왕망(王莽) 시기 화천(貨泉)의 연대를 고려하여 기원전 3~2세기부터 기원후 1~2세기로 설정하였다.¹¹⁾

이에 해방 후 북한학계에서는 금석병용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금속 사용기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존부를 두고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대체로 일본학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청동기시대를 설정하지 않고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바로 전환하였다는 견해,¹²⁾ 초기 금속 사용 시기를 청동기시대로 보는 견해,¹³⁾ 서북지역에 한해서만 청동기시대가 존재했다는 견해¹⁴⁾ 등이 상존하고 있었다.¹⁵⁾

7) 浜田耕作·梅原末治,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9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朝鮮總督府, 1923.

8) 이기성, 앞의 논문, 2010, 28~32쪽.

9) 藤田亮策, 「朝鮮の石器時代」, 『東洋史講座』18, 1942;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

10) 이기성, 앞의 논문, 2010, 32~34쪽.

11) 김용간, 「금석 병용기와 관련하여」, 『문화유산』1958-2.

12) 김광진, 「조선에서의 봉건 제도의 발생 과정」, 『력사과학』1955-8·9.

13) 리여성, 『조선미술사개요』, 국립출판사, 1955; 리응수, 「조선 노예시대사 연구」, 『력사 제 문제』1949-9.

14) 도유호, 「조선 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사회가 없었는가」, 『력사과학』1956-3.

15) 정백운, 『조선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1957.

그런데 청동기시대를 설정하는 견해 역시도 기본적으로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는 금석병용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원전 5세기 경부터 동검, 동모로 대표되는 한반도 특성의 청동문화가 기원전 3~2세기까지 지속되었다는 견해¹⁶⁾와 동검, 동모를 신라 불교예술품과 함께 삼국시대의 것으로 보면서 삼국시대를 청동기시대로 보는 견해¹⁷⁾로 나뉘어 있었다. 여전히 일본학자의 금석병용기가 수용되고 있었으며, 청동 유물에 대한 편년도 정립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금속문화의 기원에 관해서는 일본학자에 의해 제기된 중국 기원설¹⁸⁾, 북방 기원설¹⁹⁾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학계는 일본학자에 의해 제기된 ‘금석병용기’를 극복하고, 이 시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세형동검, 세형동과, 협봉모, 동탁, 쌍뉴세문경, 그리고 ‘乙’자형 동기와 거여구로 대표되는 유물들 및 도전(刀錢)과 포전(布錢)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이에 1956년 12월 26일 ‘조선 금속 문화 기원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1957년 『조선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²⁰⁾ 1958년 『문화유산』 제2호의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²¹⁾으로 정리되어 발표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석병용기’에 대해서 김용간은 이 용어 자체가 유럽에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석기와 순동이 함께 사용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동석병용기(aeneolithic period)’의 개념을 차용한 것인데, 일본학자들은 여기에 김해 회현리를 위시한 여러 패총들과 지석묘, 적석총, 석상분(石箱墳), 옹관장에 이르는 무덤들과 동검, 동모, 동탁, 거여구, 세문경 등 청동 제품들이 출토된 유적과 명도전·화천·포전·오수전 등 중국 화폐, 철기들이 출토되는 유적들을 모두 금석병용기에 포함시키고 있어, 용어 자체를 잘못 사용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그들이 금석병용기에 포함시키는 세형동검, 협봉동모, 쌍뉴세문경 등 유물들은 철기와 공반되는 사례가 많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청동기시대에도 석기를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며, 철기시대에도 청동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석기시대 사람이 청동기나 철기를 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철기가 공반되는 경우 이는 이미 철기시대에 진입한 사람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²²⁾

청동기 사용기에 대해서 황기덕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철기문화에 앞서 청동기시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하였고, 한반도에서도 청동기(동촉, 동검, 동모, 도끼, 끌 등의 이기와 세문경, 동탁, 방울, 수레 부품 등 사치품과 동용기 및 각종 거푸집)의 발견 사례가 상당함을 주목한다. 물론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되는

16) 리여성, 앞의 책, 1955(그러나 신석기시대의 하한을 아무런 근거 없이 기원전 10세기에 못박아 놓고 청동기시대의 연대를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김용준, 「사실주의 전통의 비속화를 반대하여 - 리여성(저) 『조선미술사』에 대한 비판(1)」, 『문화유산』 1960-2).

17) 리응수, 「조선 노예시대사 연구」, 『력사 계 문제』 1949-9.

18) 중국 청동기는 백동(白銅)이 많은데 조선의 청동기 역시 백동제가 많고, 중국 청동 유물의 형태가 반영되거나 중국 청동 유물 자체가 출토되는 사례를 근거로 한다(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1948. 정백운(1957)에서 재인용).

19) 북중국 청동문화에 기마 풍습을 비롯하여 북방계 청동 유물이 적지 않음을 근거로, 조선에도 북방계 문화가 직접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조선에서도 북방계 청동문화 유물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梅原末治, 「古代朝鮮に於ける北方系文物の痕迹」, 『靑丘學叢』 7, 1392, 정백운(1957)에서 재인용).

20) 정백운, 앞의 책, 1957.

21) 김용간 외,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 『문화유산』 1958-2.

22) 김용간,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금석 병용기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1958-2.

사례 역시 적지 않기에 단순히 청동기 수량의 풍부를 근거로 청동기 사용기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청동 제품을 모방한 듯한 마제 석촉, 석검류가 풍부한 점은 당시 청동기 제작을 체득한 주민이 원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수법을 석기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석묘와 같은 거석문화의 출현은 단순히 석기시대의 생산력을 토대로 나올 수는 없으며 청동기문화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청동기 사용기는 기원전 7세기 경 『관자(管子)』의 기록에 발, 조선 등과 고대 중국과의 교역 내용이 있어,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늦어도 기원전 7세기 경부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중국과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황하 유역에서 철기문화가 시작하였을 기원전 4세기 경에 한반도 전역이 청동기문화를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³⁾

반면 청동기시대의 설정이 어렵다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했다. 김재호는 한반도 청동기문화가 북방계 문화와 한문화(漢文化)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문헌 기록을 고려하면 특히 교역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한나라의 영향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국 화폐인 명도전, 안양포 외에 세형동검, 동모와 철기가 황해도, 평남도 지역에서 전한(前漢) 토광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토광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무제(武帝) 이전에 벌써 한족(漢族)의 철기문화가 고유의 청동문화와 융합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는 한반도에서 초기 청동기가 일정 기간 독자적 발전을 한 것은 틀림없겠지만 원료의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생산 도구로서 주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청동기시대’를 별도로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²⁴⁾

이상을 통해서 1950년대 중반까지 일본학자의 금속병용기를 극복하고 청동기시대를 설정하고자 하는 북한학계 나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청동기는 직접 제작하였지만 시기적으로는 철기시대에 속하는 자료로 인식하였고, 다만 지석묘나 마제석기의 존재를 통해 청동기시대가 존재했을 것으로 유추하는 정도였다. 때문에 청동기시대 설정에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957년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유적을 발굴하면서 일변한다.²⁵⁾ 지탑리 유적에서는 제2지구에서 빗살무늬토기 문화층 위에 간층을 두고 각형토기(팽이형토기) 문화층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각형토기는 다른 유적들에서 마제석검, 석촉 등 금속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유물과 공반되는 사례가 많고, 이 석검, 석촉 등은 돌멘(支石墓)이나 석상분(석관묘)에서 출토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탑리의 각형토기 문화층을 거석문화 시대의 것으로 대응시킬 수 있고, 이 거석문화에서는 청동기 모방 석기뿐만 아니라 청동기도 간혹 보이기에 각형토기 문화층을 청동기 문화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연대는 마제석검의 조형을 대체로 남부 시베리아의 타가르문화(기원전 7~5세기) 초기 제품이나, 장성지대의 청동검에서 찾았는데, 이들의 연대를 고려하면 대체로 기원전 7~6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²⁶⁾

23) 황기덕,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조선 청동기 사용기의 본부에 관하여」, 『문화유산』 1958-2.

24) 김재호,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우리 나라 초기 금속 문화의 원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58-2.

25) 북한에서는 1950년대 전후부터 선사시대 유적이 꾸준히 발굴되었다. 나진 초도, 은천 공산 유적, 회령 오동 유적, 강계 공귀리 유적, 소라리 토성 내 유적이 발굴되면서 원시시대의 문화적 양상이 점차 밝혀지고 있었다. 관련 내용은 이기성(2011)의 글에 잘 정리되어있다.

26) 도유호·황기덕,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보고(2)」, 『문화유산』 1957-6; 도유호, 「조선거석문화연구」, 『문화유산』 1959-2.

2. 60년대

이렇게 해서 꼭 청동기가 출토되지 않더라도 층위관계를 기초로 각형토기, 마제석검·석촉, 지석묘 등으로 구성되는 청동기시대를 설정할 수 있었다. 지탑리 발굴을 담당한 도유호는 이후 지탑리 유적의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각형토기문화층 사이의 간층에 주목하여, 이 간층을 ‘손잡이 있는 빗살무늬그릇층’으로 명명한 후 이 때 이미 청동기시대로 들어섰을 것으로 보았다. 즉, 거석문화 이전에 청동기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 근거는 나진 초도에서 달도끼(環狀石斧)나 돌돈(石貨)과 함께 확인되는 청동단추가 카리숙문화(기원전 13~7세기)의 청동단추와 연결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기원전 제1천년기 초엽 또는 기원전 제2천년기 말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하한은 철기시대로 진입하는 기원전 3세기 이전인 기원전 4세기대로 보았다.²⁷⁾

이후 청동기시대의 상한은 기원전 2000년대로 점차 상향되는 양상을 보인다. 김용간은 각형토기 및 거석문화 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공산문화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석기와 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주목하였다. 석기의 경우,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마제석검은 금속 제품을 모방한 것이고, 턱자귀, 반월형석도, 곤봉두 등은 공산문화에는 없는 것이며, 각형토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경양익촉(有莖兩翼鏃, 뿌리나래활촉)은 청동제의 유경양익촉과 형태적으로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토기의 경우, 각형토기의 만들새, 문양 등이 신석기시대 공산문화의 빗살무늬토기와 전혀 다름을 지적하였다. 또한 평안남도 승호군 금탄리 각형토기 주거지에서 청동 끝이 출토된 사례, 황해북도 봉산군 신흥동 각형토기 주거지에서 청동단추 조각이 출토된 사례, 황해북도 사리원시 상매리 석관묘에서 석제와 청동제 유경양익촉이 출토된 사례를 제시하며 이들이 청동기 시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²⁸⁾

그 외에도 함경북도 나진 초도 유적(1949년 가을 발굴) 관련 유적이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연해주 일대에 분포하고, 두만강 좌우안의 함경북도 및 중국 연길 지방 일대에는 회령 오동(1954~55년 발굴) 및 무산 범의구석(1959~1961년 발굴)형의 유적과 유물이 분포하며, 압록강 양안 일대에서 송화강 유역에 이르는 일대에는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1955년 봄 발굴), 시중군 심귀리(1958년 발굴)형의 유적과 의주군 미송리(1959년 발굴)형의 유적이 있어,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경계선과 상관없이 북한지역과 중국동북지역이 문화적으로 연결됨을 지적하였다. 이제 북한지역 청동기문화의 범위가 중국 동북 및 러시아 연해주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확장된 지역 범위에서 보면 초도 유적 출토 관옥 등과 함께 자강도 시중군 풍룡리의 석관묘 출토 단추, 중국 길림 부근 소달구(騾達溝), 토성자(土城子) 등 돌무덤(石墓)에서 나온 도끼, 칼, 단추 및 련주상장식품, 미송리의 도끼 등 청동기의 수량과 종류가 더욱 풍부해 진다. 또한 청동기는 아니지만 무산 범의구석에서는 토제 단추, 회령 오동에서는 옥제 단추가 출토되었고, 오동 및 초도 유적과 유사한 연길 소영자 유적에서는 바이칼호 근방의 청동기시대 글라즈코보문화에 흔한 뼈단검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연해주 일대의

27) 도유호, 『조선원시고고학』, 과학원출판사, 1960.

28) 김용간, 「우리나라 금속문화의 기원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1-5, 50~53쪽.

초도형 유적에서는 남시베리아의 청동기시대 카라숙이나 타가르문화 청동제품을 모방한 돌칼 및 단검이 나오는 등 청동제품 모방 석기의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 유적의 연대는 북방 청동기문화의 연대와 비교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카라숙문화는 기원전 13~7세기로 편년되고, 타가르문화의 청동기시기는 기원전 7~5세기로, 바이칼 연안의 글라즈꼬문화는 기원전 18~13세기로 편년되기에 한반도 및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2000년대 후반부터 1000년대 전반기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세죽리 유적(62, 63년 발굴)이 발굴됨에 따라 층위적으로 각형토기-미송리형토기-목방리형토기의 층위 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다.²⁹⁾ 이후 김용간은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된 미송리 유적 상층이 길림지역의 소달구 석관묘와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달구 출토 청동칼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춘추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이미 출토되기에 미송리 유적 상층의 연대는 적어도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보다 이른 시기인 각형토기 및 탁상식 지석묘는 관련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는 청동단추의 연대를 고려하여 기원전 2000년기 말로 편년하였다.³⁰⁾ 이렇게 되면, 각형토기보다 이른 ‘손잡이빗살무늬토기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2000년대로 편년된다.

이렇게 60년대는 북한 청동기문화의 지역 범위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까지 확장하는 인식이 출현하는 한편, 바이칼 연안의 청동기문화까지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청동기시대의 상한이 기원전 2000년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3. 70년대

이후 70년대가 되면 청동기시대를 기원전 2000년기와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로 설정한다. 기원전 2000년기는 간단한 청동제 장식품들 외에 토기갯춤새의 변화(유문토기에서 갈색 무문토기로의 변화, 일부 지역은 붉은간토기 또는 검정간토기 출현), 석기류에서 무기류의 증가 등에서 신석기시대와는 다른 문화양상이 뚜렷해지며, 적어도 기원전 3000년기 말, 2000년기 초에는 압록강 하류 및 요동지역,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유역, 두만강 유역과 동해 연안 지역, 한반도 남부로 구분되는 문화유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를 제외한 지역별 청동기시대 문화유형 및 주요 유적에 대한 기원전 2000년기부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 초까지의 편년체계를 완성한다.³¹⁾

여기서 청동기시대의 상한이 기원전 2000년기 말에서 2000년기로 상향된 것은 각형토기의 편년 성과에 기인한다. 지탑리 유적 제1지구에서는 교란층에서 신석기시대의 타래무늬토기(파상점선문토기)와 반월형석도, 변형 각형토기, ‘손잡이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교란층이기에 정확한 시간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발굴자인 도유호는 이 중 ‘손잡이빗살무늬토기’는 ‘X’자 무늬가 있는 대상파수로 변형의 빗살무늬토기와

29) 김종문,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 『고고민속』 2기,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김용우,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2) 『고고민속』 4기,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30) 김용간,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민속』 1964-2.

3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62~67쪽.

무문토기가 혼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제2지구에서 빗살무늬토기 문화층과 각형토기 문화층 사이의 간층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³²⁾ 그리고 이러한 ‘손잡이빗살무늬토기’가 평양시 금탄리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으며, 발굴자인 김용간 역시 이를 전형적인 각형토기가 출토되는 금탄리 제3문화층보다 이른 금탄리 제2문화층으로 처리하였다.³³⁾ 그런데 이 금탄리 제2문화층의 연대는 기원전 3천년기 말 또는 그 이전으로 편년되기에,³⁴⁾ 각형토기 초기형의 출현은 이보다 늦은 기원전 2천년기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⁵⁾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편년은 세죽리 유적의 발굴 성과에 기인한다. 세죽리 유적의 층위에서 명도전과 철기가 출토되는 철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 문화층 사이 교란층에서는 세모고리 손잡이, 두형토기, 유구석부, 십자형 검자루맞추개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 문화층에서는 미송리형토기, 묵방리형토기와 함께 각형토기와 유사한 특징의 토기들이 줄곧 공반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죽리의 교란층은 기원전 5~4세기로 편년되기에³⁶⁾ 청동기 문화층의 하한은 기원전 5~4세기 이전이 된다.

이렇게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5~4세기 이전의 편년의 틀을 놓고 각 지역별 청동기시대 문화유형에 대한 상대서열과 편년을 진행한 것이다.

서북한과 요동지역의 청동기시대는 평양지역의 각형토기 유적과 요동지역의 쌍타자 유적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먼저, 평양지역 중심의 각형토기는 기본적으로 ‘금탄리 제3문화층 → 신흥동-침촌 유적 → 석탄리 유적 → 립석리·설바위 유적’의 상대서열을 가진다.³⁷⁾ 각형토기 유적 중 제일 늦은 립석리 유적과 이후 단계의 세죽리-매방산(세모고리 손잡이 등 출토) 유적 간에는 유물조합 등 문화양상에 큰 차이가 있어 바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얼마간의 시간 차이를 상정한 후 립석리 유적은 대체로 기원전 8~7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신흥동-침촌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2000년기 말~기원전 1000년기 초, 이보다 앞선 금탄리-와산동유적(금탄리 유적 제3문화층)의 연대는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로 대략 편년하였다.

한편, ‘당산-조공가유형’에서는 토기에 이중구연과 함께 신석기시대의 특징인 침선무늬의 특징이 잔존하고 있어 각형토기보다 분명히 이른 것으로 보고 대략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로 추정하였다.

요동반도의 쌍타자 제3문화층은 해당 문화층의 주거지가 기원전 8~7세기로 편년되는 강상무덤 밑에서 확인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쌍타자 제3문화층과 강상무덤의 문화양상에서 보이는 발전 단계의 격차가 크기에 직접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약간의 시기차를 두고 기원전 2000년기 말 또는 1000년기 초로

32) 도유호, 『지탑리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집), 과학원출판사, 1961, 79~80쪽.

33) 김용간, 『금탄리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0집), 과학원출판사, 1964.

34) 김용간은 서북조선의 신석기시대에 대한 편년을 실시하면서 금탄리 제1문화층을 기원전 3천년기 전반기로, 제2문화층 다음 단계의 청동말래유형의 유적을 기원전 2천년기 초 또는 3천년기 말로 보았다(김용간, 「서북조선 빗살무늬그릇유적의 연대를 논함」, 『고고민속』 1966-1).

35) 황기택, 「서부지방 팽이그릇유적의 연대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4(구체적으로 금탄리 제3문화층은 제2문화층과 문화양상의 차이가 크기에 곧바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기원전 2000년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다만, 전형적인 각형토기가 출현하기 이전 초기 형태의 각형토기는 그 이전인 기원전 2000년대 전반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6) 김용간·황기택, 「기원전 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1967-2, 1~17쪽; 고고학연구소, 「제2장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1, 1969, 67~139쪽.

37) 황기택, 위의 논문, 1966.

편년하였다. 그리고 쌍타자 제2문화층은 중국 용산문화와의 관계가 확인되기에 이를 참고하여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였다.

압록강과 송화강유역은 공귀리유형 유적과 서단산자유형 유적들로 대표된다. 압록강 중상류의 공귀리유형은 공귀리 유적 윗 문화층의 특징적인 덧무늬토기가 기원전 8~7세기로 편년되는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된 세죽리 유적의 27호 주거지 밑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이른 시기로 편년하였다. 공귀리 유형 중 심귀리 유적(1호, 2호 주거지)은 주거지 내에서 초석이 확인되며, 청동기시대 초기에 흔한 흑요석기가 보이지 않는 반면, 공귀리 유적에서는 흑요석기가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공귀리 유적보다 심귀리 유적이 늦은 시기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심귀리 유적은 기원전 1000년기 초, 공귀리 유적의 아래, 위 두 문화층은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에 속하는 것으로 편년하였다.

송화강 유역의 서단산자유형은 서단산자 유적에서 미송리형토기 또는 변형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는 점³⁸⁾을 들어 대체로 미송리형토기의 연대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만강 유역의 유적들은 기존에 수립된 오동, 범의구석, 서포항 유적의 층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출토 유물조합을 진행하여 상대편년을 진행한 바 있다.³⁹⁾ 그 상한은 기원전 3000년기 말로 편년되는 서포항 유적

〈표 1〉 북한-중국 동북지역 청동기시대 편년표(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지역	시기(BC)	청동기					초·철
		2000 전반	2000 후반	2000 말~1000 초	8~7	7~5	5~4
서북한·요동	당산-조공가 유형	전형 각형토기				?	세죽리-매봉산 유적
		금탄리 제3문화층	신흥동-침촌 유적	석탄리	립석리 유적		
		쌍타자제2문화층	쌍타자제3문화층	?	강상		
압록강 중상류·송화강 유역		공귀리 아래 문화층	공귀리 윗 문화층	심귀리 유적	서단산자유형		
두만강 유역	서포항 청동기시대 1기층-오동 1기층	범의구석 2기층 - 초도유적 붉은간토기층	오동 3·4기층/범의구석 3기층		범의구석 4기층	범의구석 5기층	
지역	시기(BC)	2000 전반	2000 후반	2000 말~1000 초	1000 전반초	7~5	
		청동기					초·철

38) 최초 보고(1960)에서는 서단산자 1호 석관묘 출토 장경호를 한대(漢代) 토기로 판단하였으나, 도유호(1969), 김용간(1964) 등은 이를 미송리형 토기의 변형으로 판단하였다(吉林大學歷史系文物陳列室, 「吉林西團山子石棺墓」, 『考古』 1960-4, 36쪽 도4의 오른쪽 토기; 도유호, 앞의 책, 1960, 138쪽; 김용간, 앞의 논문, 1964).

39) 황기덕,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 『고고민속론문집』 2, 1970; 황기덕, 「무산 범의구석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론문집』 6, 1975.

신석기시대 제5기층 또는 범의구석 유적 제1기층을 기준으로 하고, 하한은 기원전 7~5세기로 편년되는 초기 철기시대층인 범의구석 유적 제5기층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포항 유적 청동기시대 제1기층과 오동 유적 제1기층을 기원전 2000년기의 전반기로, 범의구석 유적 제2기층, 초도 유적의 붉은 간토기층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로, 오동 유적 제3기층과 제4기층, 범의구석 유적 제3기층을 기원전 2000년기말, 기원전 1000년기 초로, 범의구석 유적 제4기층을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초로 각각 편년하였다.

한편, 청동기시대는 엄밀히 말해서 기원전 1000년의 전반기까지 지속되지만 비파형동검이 등장하는 기원전 8~7세기는 이미 고조선이라는 노예제 국가가 이미 등장했기에, 청동기시대에 대한 서술은 기원전 1000년 초까지에만 머무르고, 기원전 1000년의 전반기는 고조선문화 속에서 다룬다.

Ⅲ. 철기시대의 설정

이상의 흐름을 거쳐 북한학계에서는 한반도의 청동기시대가 상정되고 그 연대도 대체로 기원전 2000년 기~기원전 5·4세기 이전으로 정립된다. 여기서 청동기시대의 하한은 철기시대의 상한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철기시대의 상한은 어떻게 설정된 것일까.

1. 50년대

해방 후 많은 일제 어용학자들과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전국시기 유민(流亡民)들에 의해서 철기가 한반도에 전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철기시대의 개시를 한 무제의 4군 설치 이후로 보았으며, 세형동검, 협봉동모, 동탁, 거여 부속 등의 청동기는 한 무제의 조선 침공 이전인 대체로 위만 조선 시기의 것으로 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사군 설치 이전에도 철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시기는 석기시대에 머물고 있던 한반도 주민들이 중국 한문화의 영향으로 철기가 유입된 ‘금석병용기’로만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학계에서는 금석병용기의 대표 유물로 여겨지던 세형동검, 협봉동모, 쌍뉴세문경 등 유물들이 유물군으로 출토될 때는 많은 경우에 철기 내지는 철기시대의 징표를 갖는 유물들과 공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유물들은 이미 ‘철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⁰⁾ 그리고 이들과 함께 중국 전국시대(기원전 403~256)에 사용된 명도전(明刀錢), 안양포(安陽布), 탁양포(宅陽布), 양평포(襄平布) 등 화폐의 존재가 압록강, 청천강 상류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었기에,⁴¹⁾ 전국시대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 역시 철기가 유입되

40) 1907년 황주 흑교(黃州 黑橋) 유물군의 세형동검, 협봉동모 등에 천상 횡문 오수전(五銖錢)이 섞여 있었으며, 철기도 있는 것 같다고 한 사례나, 1919년 경주 입실리(入室里) 유물군 중 위의 청동유물 외에 철부, 철검 편, 쇠부치가 출토된 사례, 1924년 대동군 오야리(梧野里) 유물군 사례, 1932년 대동군 상리 유물군, 1954년 황해남도 은울군 운성리 유물군, 1956년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유물군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김용간, 앞의 논문, 1958).

41) 정백운, 앞의 책, 1957.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절대연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가령 위원 용연동에서 전국시대 명도전과 함께 철부가 확인되었지만, 일본 학자는 이 철부를 단조철부로 이해하고 한대 유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황해북도 흑교에서 세형동검, 협봉동모, 거여구들과 함께 전한 선제(宣帝) 신작(神爵) 2년(기원전 60년)에 주조되었다고 알려진 천상횡문(穿上橫文) 오수전이 발견되어 소위 철기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의 연대를 한사군 설치 이전으로 올릴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⁴²⁾

그러나 곧 북한학자의 관찰 결과 위원 용연동 출토 철부가 단조품이 아닌 주조철부인 점이 밝혀지고, 중국 전국시대에 유행하였던 주조철기와 비교하게 된다.⁴³⁾ 이에 따라 철기시대의 개시는 한 무제의 한사군 설치 이후가 아니라 늦어도 중국의 전국시대인 기원전 4~3세기로 보게 되며, 대체로 연(燕)나라 지역의 철기시대 개시와 비슷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주요 묘제는 토광묘이며, 화분형토기, 타날문 회도가 철기시대의 특징적인 토기임을 인식하였다.

2. 60년대

이후 도유호는 검정간그릇(흑색마연토기)을 주목하였다. 비록 물레를 사용한 전형적인 철기시대의 회도류는 아니지만, 나진 초도에서 발견된 검정간그릇 종류의 굽접시나 시루가 철기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출현한 상태에서 철기문화를 수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초기철기시대의 토기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관련 유적으로는 두만강 유역의 무산 범의구석, 회령 오동, 나진 초도 유적과 압록강 유역의 노남리(독로강 유역의 유적), 미송리 동굴 유적의 상층, 재령강 유역의 솔피골 돌돌림 무덤 및 낙동강 유역의 김해, 양산 조개무지 등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철기문화가 중국의 영향이 아니며 오히려 더 빨리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서북조선에서는 토광묘로 대표되는 철기시대로 전환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원시시대를 벗어나며 그 상한은 기원전 4세기 또는 3세기 초로 보았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는 한반도 남부도 철기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았다.⁴⁴⁾

당시 요서지역의 조양 십이대영자 유적과 호로도 오금당 유적에서는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음이 정식으로 보고되어⁴⁵⁾ 북한학계에도 알려진다. 보고자는 이들을 대체로 춘추말~전국초로 편년하였지만, 도유호는 조양 십이대영자 출토 비파형동검을 '만주식 동검'이라 부르며, '석암리(직인형 단검 : 중국계) → 태성리(좁은숫단검(세형동검) : 고조선계) → 십이대영자(만주식동검)'으로 변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파형동검이 세형동검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⁶⁾ 그러나 이후 정찬영은 중국학계의 견해를 수용하여 비파형동

42) 정백운, 앞의 책, 1957.

43) 정백운, 「우리나라에서 철기시대의 개시에 관하여」, 『문화유산』 1958-3, 52-58쪽.

44) 도유호, 앞의 책, 1960(제2판에서는 노남리 유적과 솔피골 돌돌림 무덤 등은 각각 고구려 초기, 고조선 시기의 것으로 정정하였다).

45) 朱貴,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劉謙, 1960, 「遼寧錦西縣烏金塘東周墓調查記」, 『考古』 1960-5.

46) 도유호, 앞의 책, 1960.

검이 대체로 춘추말~전국초에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만주식단검’은 좁은놋단검의 방제품이 아니며, 기원전 5~3세기 남만주 및 조선 일대에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최종적으로는 ‘만주형단검→중간형단검→좁은놋단검’의 변천상을 제시하였다.⁴⁷⁾

이러한 비파형동검에 대한 인식은 이후 선형동부 및 석관묘와의 관계와 함께 초기철기문화의 상한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기덕은 초기철기문화를 비파형동검 및 석관묘제와 관련시키며 상한을 기원전 7~5세기까지 끌어올렸다.⁴⁸⁾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두만강 유역의 범의구석 유적에서는 철부와 철판이 출토되었고, 회령 오동 6호 주거지 내부퇴적토에서는 철부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두만강 북쪽 왕청(王淸) 부근의 신화려(新華閣) 북산(北山) 묘지는 기본적으로 석관묘인데, 마제석기와 함께 철제품이 채집되었다.⁴⁹⁾ 그는 이 채집품도 역시 석관묘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아마 석관묘 단계 마지막에는 이미 초기철기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길림 소달구(騷達溝) 산저자(山咀子) 1호 돌상자 무덤(석관묘)에서 돌화살촉, 돌칼, 선형동부(주머니 도끼) 등과 공반된 청동단추에 쇠녹이 붙어 있었고, 철판까지 들어있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⁵⁰⁾ 이렇게 마제석기와 철기가 공반되는 것은 초기철기시대의 특징이며, 범의구석이나 오동 역시 비슷한 시기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소달구 산저자에서 출토된 선형동부는 비파형동검과 공반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목양성 즉주묘(聖周墓)와 려순 류가탄(劉家疃)의 돌무덤(石塚)에서는 비파형동검과 선형동부가 공반되었다.⁵¹⁾ 길림 소달구의 산정대관(山頂大棺),⁵²⁾ 미송리 동굴 상층,⁵³⁾ 함경북도 어랑천 유역⁵⁴⁾에서도 비슷한 선형동부가 출토된 바 있다. 이들 유적은 선형동부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속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세형동검은 대체로 기원전 3세기부터 유행하기에, 이보다 이른 비파형동검은 기원전 4세기말~3세기 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비파형동검의 하한이고 그 상한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조양 십이대영자 무덤에 대해 보고자가 춘추말~전국초로 본 것과 달리 이 무덤에서 출토된 동경의 번개무늬는 전국시대 이전으로 보이며, 금서 오금당의 비파형동검과 공반된 동과도 전국시대 이전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춘추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만강 유역의 초기철기시대는 석관묘의 마지막 단계와 비파형동검의 초기와 병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작은 대체로 기원전 7~5세기로 폭넓게 추정하였다.

이후 리병선은 한반도 북부지역~요동 및 송화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미송리형토기와 관련된 일부 유적에서 철기가 출토됨을 주목하였다.⁵⁵⁾ 먼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송리형토기 유적이 공귀리문화를 계승하였

47) 정찬영, 「좁은놋단검(세형동검)의 형태와 그 변천」, 『문화유산』 1962-3, 56쪽.

48) 황기덕, 「두만강 류역 철기 시대의 개시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4.

49) 王亞洲, 「吉林王淸縣百草溝遺址簡報」, 『考古』 1961-8, 415~416쪽.

50) 修柱臣, 「吉林的新石器時代文化」, 『考古通訊』 1955-2, 5~12쪽.

51) 東亞考古學會, 「牧羊城-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址」,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二冊, 1931, 47~52쪽.

52) 修柱臣, 위의 논문, 1955, 8쪽.

53) 김용간, 「미송리 동굴 유적 발굴 중간 보고 II」, 『문화유산』 1961-1, 56쪽.

54) 청진 역사 박물관 소장.

55) 리병선, 「압록강유역에서 철기시대의 시작」, 『고고민속』 1967-1.

음을 강조하고,⁵⁶⁾ 미송리형토기 중에서도 지그재그무늬 미송리형토기(즉, 묵방리형토기)가 회도와 공반되는 사례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에서 언급한 길림 소달구 산저자 1호 석관묘에서 철기와 회도가 출토된 것과 관련시켰다.⁵⁷⁾ 이상 유물의 공반관계 비교를 통해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유역 일대는 역시 적어도 기원전 7세기에는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섰으며, 소달구 유적의 조영시기가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한은 기원전 7세기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60년대는 철기시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두만강 유역과 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 유역의 초기철기문화의 상한을 기원전 7~5세기까지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초기철기시대의 상한은 강상 무덤 출토 전형비파형동검의 연대가 춘추시대인 기원전 8~7세기를 상한으로 하기에 적어도 7세기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서북한과 요동지역은 고조선사의 범위 속에서 논의된다.⁵⁸⁾ 기원전 1000년기 후반기의 고조선문화는 이전 시기의 비파형동검을 전통을 계승 발전한 좁은놋단검(세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철기문화가 성행한다고 한다. 대체로 초기철기시대의 초기 세형동검과 철기시대인 세형동검을 대표적인 철기문화로 거론한다. 또한 이 시기의 세문경, 수레 및 마구 등 금속기류, 이중구연토기, 화분형토기 등 토기류, 돌을 사용하는 매장 풍습 등은 비파형동검 시기의 전통을 계승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⁵⁹⁾

3. 70년대

서북한-요동지역의 철기시대는 곧 고조선의 후기문화로 이해된다. 그런데 기존에 고조선의 철기문화로 여겨졌던 세형동검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고조선의 범위가 서북한과 요동지역을 아우르는 가운데 청천강 이북~요동지역을 아우르는 철기문화에 대한 서술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청천강 이북~요동지역의 기원전 3~2세기 철기문화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지역의 철기문화를 '세죽리-연화보유형'으로 정의하게 된다.⁶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죽리-연화보유형의 분포는 동쪽으로 청천강과 대동강 상류지대, 서쪽은 요하를 지나 대릉하 유역까지이며,⁶¹⁾ 약 30여개소의 유적이 있는데, 특히 요하유역 일대에 유적이 집중한다고 한다. 유적 종류는 주거지, 무덤(토광묘, 패묘(貝墓), 옹관묘), 명도전 매납유구가 있다. 세죽리-연화보유형 유적에서는 철제 농공구와 타날문 회도, 명도전을 비롯한 화폐가 다수 확인된다.⁶²⁾

56) 리병선, 「압록강 및 송화강중상류 청동기시대문화와 그 주민」, 『고고민속』 1966-3.

57)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파형동검, 선형동부, 묵방리형토기, 회도, 철기가 모두 동일한 시기 범위에 속하게 되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58) 한편, 압록강 중류 및 송화강 유역은 고조선의 변방지역으로 부여·고구려의 선조였을 가능성이 높기에(리병선, 1966), 이후 고조선사의 구축에 있어서 이 지역은 논의되지 않는다.

59) 김용간·황기덕, 앞의 논문, 1967; 고고학연구소, 앞의 논문, 1969.

60) 리순진·장주협, 『고조선문제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3.

61) 그러나 대릉하유역의 유적과 유물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이후의 서술에서도 대체로 요하유역을 서쪽 계선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서북한-요동지역의 철기문화는 기원전 5~4세기의 초기철기시대(이도하자시기)를 거쳐 기원전 3~2세기에는 청천강 유역을 경계로 그 위쪽은 세죽리-연화보유형, 그 아래쪽은 세형동검문화로 대별되게 된다.

IV.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인식

1. 50·60년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말이 되면 북한고고학계에서는 한반도에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가 분명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내용은 1960년 도유호의 『조선원시고고학』에 종합 정리된다. 그러나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를 원시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 문화를 조선의 고대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유호를 중심으로 하는 고고학계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의 고고학문화가 고조선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지역, 어떤 시기의 어떤 고고학문화가 고조선인지 구체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한편, 1959년 12월 삼국시기 이전 고대 종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⁶²⁾ 이는 세형동검, 세형동과, 협봉모, 동탁, 쌍뉴세문경, 그리고 ‘乙’자형 동기와 거여구로 대표되는 유물들이 주로 출토되는 토광묘의 성격과 함께 삼국시대 이전 고대 종족과 국가 기원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 토론회의 내용을 간략히 보자. 먼저, 고고학적으로 토광묘는 한식 묘제인 낙랑의 귀틀무덤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대체로 지식묘가 사라지는 기원전 3~2세기부터 출현하였고, 청동기시기의 석검은 중국이 아니라 카라숙이나 타가르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것이 동검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중국의 청동문화와도 일정한 연계를 맺고 독자적인 조선 세형동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주인은 연·제·조·한의 주민이 아니며, 그렇다고 고구려나 부여족도 아닌 위만조선시기의 주민집단이 남겼다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는 토광묘가 한사군 설치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청동기문화는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은 후 독자적으로 세형동검이 발전한 것을 강조하였지만, 토광묘나 세형동검이 위만조선시기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것이라고 할 뿐 명확하게 고조선 사람들이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역사학자인 김석형은 고조선이 기원전 3~2세기 이전에 존재했으며, 『사기』에 등장하는 동호 또는 예맥조선이 곧 고조선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여, 역사학계에서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조선의 물질문화는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 토론회에서 토광묘와 고조선을 명확하게 연결시키지 않았던 전주농은 이후 양자를 연결시키는 견해를

6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앞의 책, 1977.

63)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우리 나라 고대 종족과 국가 발생에 관한 토론회』, 『문화유산』 1960-1.

발표한다.⁶⁴⁾ 그는 기존 자료와 강서군 태성리 및 안악군 복사리 유적 발굴 최신 성과를 토대로 이 토광묘가 ‘한식 무덤(귀틀무덤, 전실묘)’보다 앞선 시기임을 재차 규명하였다. 그리고 토광묘는 세형동검, 협봉동모를 비롯한 일련의 청동유물(거여구, 마구류, 세문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검창문화’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분포를 보면 대동강반 중심의 평양 부근, 낙동강 유역을 포함한 경주 부근에서 밀도가 비교적 높게 분포하는데, 검창문화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위만에게 밀려난 준왕 고조선의 남분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발견되는 검창문화는 바로 준왕 고조선과 관련된 것이며, 그 존재는 준왕 이전의 전국시대 후반 정도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하였다.⁶⁵⁾ 반면 명도전 출토 유적은 검창문화가 출현한 이후 진말~한초 중국의 혼란으로 인해 연·제·조 사람들이 서북한 지역으로 피난온 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조선의 철기문화는 명도전을 가져온 사람이나 한사군 설치에 의해 개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철기문화가 존재했고 그 가운데 검창문화가 꽃피운 것이라고 하여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어쨌든 이때까지 북한고고학계에서 토광묘와 세형동검을 중심으로 하는 (철기시대의) ‘검창문화’를 시기적으로는 준왕조선 시기의 어떤 집단이 남긴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고조선 집단이 남겼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물론 문맥적으로 ‘이 집단이 고조선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읽을 수는 있다.

이후 1960년 4월 1일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 토론회가 개최되면서 지난 토론회의 내용을 더욱 진전시켜 고고자료와 문헌자료를 비교하여, 고조선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⁶⁶⁾ 이 토론회에서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고조선의 영역을 중국 동북지역까지 포괄하는 반면 고고학자들은 한반도 서북부로 한정하는 견해차가 보인다. 그런데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고조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 이 토론회에 참여했던 정찬영과 도유호는 이후 별도의 논문으로 관련 내용을 각각 발표한다.

정찬영⁶⁷⁾은 고조선이 인종적, 종족적으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서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문헌 기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로서의 고조선시기를 대표하는 검창문화 계통 유물의 상한은 전주농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기원전 3세기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았고, 하한은 기원전후까지로 보았다. 이 검창문화는 비중국적인 요소가 강하고, 한사군 설치 시기보다 1~2세기 빠르기 때문에 중국인이 아닌 고조선 사람이 남긴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명도전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주농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먼저, 한반도 출토 명도전에서 초기 형식을 제외한 여러 형식이 보이는 점과 조선 내 고대의 중요 교통로와 주거지들에서 주로 확인되는 점은

64) 전주농, 「고조선문화에 관하여 - 토광 무덤 형태의 고찰을 중심으로 -」, 『문화유산』 1960-2.

65) 세형동검, 세형동과의 형식학적 특징, 평양 석암리의 진시황 25년(기원전 222년) 명 진과, 정백리의 〈五年李氏□〉 명(진시황 5년으로 추정. 기원전 242년) 동모 등을 근거로 검창문화가 한사군 설치 이전에 존재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위연 용연 등에서 명도전과 함께 출토된 철제 비수가 검창문화의 청동 비수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명도전은 인근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요동 고려채, 목양성 등지에서 반량진, 일화전과 공반되는 사례가 확인되기에 이들의 중심 연대는 진말~한초로 보았다. 따라서 명도전 유적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출현한 검창문화는 늦어도 전국후기부터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전주농, 위의 논문, 1960).

66)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 토론회」, 『문화유산』 1960-3.

67) 정찬영, 「고조선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0-3.

명도전이 어느 특정 시점에 한 번에 들어온 것이 아닌 유통 시기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명도전이 반량전과 일화전 등과 반출되는 사례를 명도전 유적의 하한으로 보았다.⁶⁸⁾ 따라서 명도전 유적은 (전국 중·후기인) 기원전 4세기 말부터 기원전 3세기 말 내지는 2세기 초까지로 편년하였다. 그 견해에 의하면 중국계의 명도전 유적이 검창문화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명도전 유적을 진말~한초 피난민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전국시기의 연제조 피난민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제도전(齊刀錢) 등 다른 전국시기 나라의 화폐는 출토되지 않고 단지 연나라 화폐만 출토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또 피난민이라면 비중국인 계통의 주거지에서는 중국계 유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⁶⁹⁾

따라서 오히려 원주민이 한족과의 교역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조선 서북부 토광묘에서 명도전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토광묘에 화폐를 부장하는 풍습이 없었거나, 당시 화폐가 그 사회에서는 유통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명도전 사용시기보다 시대적으로 뒤늦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⁷⁰⁾

그는 고조선의 영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후기 고조선의 경계를 압록강 유역으로 보았다. 그 근거는 평민들이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되는 변형 각형토기류가 압록강 유역을 그리 벗어나지 못하는 점, 그리고 토광묘가 이후 청천강 이북에서 발견될 가능성⁷¹⁾을 근거로 한 것이다. 또한 청천강을 패수로 볼 경우 진나라 시기의 장성 끝이 청천강 안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장성의 흔적이 이 일대에서 찾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도유호⁷²⁾는 삼국시대를 봉건시대, 삼국시대 이전의 국가를 노예소유자적 국가로 보는 당시 학계의 견해를 대체로 받아들이며, 조선의 고대사 영역에서 최초의 국가 성격을 구명하는 데 초기철기시대 연구가 중요함을 피력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초기철기시대는 중국의 영향이 아닌 스킨드문화(스키타이문화)와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며, 그 영향은 기원전 6세기부터 다소 미치기는 하였겠지만, 대체로 기원전 4세기대부터 철기시대에 진입하였고 중국의 철기시대 개시와 시기차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철기시대에 진입한 후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계 철기문화가 새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의 철기문화는 최초로 북방계통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위 후기 고조선문화를 구성하는 철기문화는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기존에 한반도 철기문화와 중국의 차별성을 강조하던 견해에서 벗어나 철기문화의 다양성을 보다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고조선 주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존의 견해에 다소 수정을 가하며 중국과의 관계성을 부각시킨다.

68)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출토품.

69) 당시 비중국계 유적인 독로강 유역 시중군 노남리 유적에서 명도전 소편이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70) 정찬영은 은불군 은성리에서는 토광묘에서 오수전이 한 점 출토되었지만, 화폐 용도가 아닌 마탁(馬鐸)의 방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71) 의주에서 구성, 태천을 거치는 라인은 서해안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교통로에 속하였기에 토광묘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72) 도유호,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60-4; 도유호, 「왕검성의 위치」, 『문화유산』 1962-5.

가령, 기존에는 고조선식으로 보았던 평양 장천리 세형동검 거푸집은 고조선식 세형동검으로 가공되기 전 중국사람의 기술로 기본형을 만드는 거푸집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석암리 출토 세형동검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런 후 2차 가공을 거쳐 비로소 고조선식 세형동검이 되는 것이다. 그 외 산자문(山字文) 동경이나 명도전 역시도 시기적으로 전국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연제조 피난민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역시 중국사람이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시황 25년 통과, 석암리 출토 도씨검, 평양 출토 진시황 5년 동모 등도 진시황 시기 중국사람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토광보 역시도 중국에서 전국 시기에 유행하던 것이기에 중국사람에 의해서 한반도에 유입된 후 위씨조선시대 고조선의 지배층이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조선의 영역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는 고조선과 관계된 검창문화가 청천강 이북 평안북도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명도전 유적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사람이 남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조선 국가의 영역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평양이며, 왕검성 역시 평양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한다. 한편 북쪽 경계에 대해서는 서북쪽은 명도전 한계선을 기준으로 청천강유역, 동북쪽은 회령 오동 등 두만강 유역의 초기철기문화의 존재를 고려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보았다. 그리고 검창문화를 기준으로 하면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대체로 기원전 3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며, 중국 동북지역은 기본적으로 조선 고대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한고고학계는 고조선의 북쪽 경계를 압록강 또는 청천강으로 보는 견해가 병립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평양중심설을 주장하며, 고조선 국가의 형성 역시도 기원전 3세기 경부터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계의 주장은 기왕의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주장하는 문헌사학자들과 논쟁의 국면에 접어들지만⁷³⁾ 최종적으로는 요동중심설이 북한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리잡는다.⁷⁴⁾

이렇게 정리된 북한학계의 고조선 요동중심설은 1961년 북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리지린의 『고조선연구』(1963)⁷⁵⁾의 내용으로 대표된다. 리지린은 중국의 옛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조선의 서쪽 경계선은 역사적으로 일정한 변동이 있었는데, 말기의 서변은 대릉하(大陵河)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3세기 초까지 난하(灑河)를 서쪽 경계로 했지만, 기원전 3세기 초 서방의 광대한 영역을 연에게 빼앗긴 결과 오늘날의 대릉하(溟水) 이동 지역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王儉城)은 요하 하류의 동쪽 지역, 특히 요하 하구에서 동쪽, 발해만 남쪽이 대상지이며, 영구(營口)의 동쪽인 개평(蓋平)을 왕검성의 유력한 후보지로 지목한다. 이 고조선 말기 영역은 서쪽으로는 대릉하, 중심은 요동지방, 남쪽 경계선은 압록강으로 추정한다. 고고학적으로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석기류(돌호미, 돌보습, 달도끼, 별도끼, 갈돌과 갈판), 토기류(빗살무늬토기, 채색도기, 흑색도기, 화분형토기), 거석문화, 청동기류(세형동검, 비파형동검, 동경, 거여구, 동물형대구, 동북) 등을 고대 조선인이 남긴 것으로 보았다. 한편,

73) 리지린 외,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74) 이기동, 앞의 논문, 1988; 김정배 편, 『북한이 본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90; 역사학회 편, 『북한의 고대사 연구』, 1990; 조법중, 「북한의 고조선사 인식 체계에 대한 고찰」,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I)』, 대륙연구소, 1991(조법중(2006)에서 재인용).

75)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고조선족은 기원전 12세기 전후부터 중국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기원전 7세기 제나라와의 교류 또는 기원전 3·2세기 중국의 혼란기 중 중국 유민의 이동 등을 통해 중국 문물이 고조선 지역에 유입되었을 것인데, 압록강 이남 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 중국 문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고조선의 영역은 요동과 요서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고조선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진국(마한)과 접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마한의 영역이었고, 평양이 그 중심지였다는 것이다.⁷⁶⁾

그러나 고조선 요동중심설이 공식 입장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북한학계는 정립된 고조선 요동중심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가한다.⁷⁷⁾ 특히 중국학계와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를 조직하여 1963년~1965년 쌍자타, 강상·루상, 와룡천, 윤가촌, 정가와자, 남산근 등 중국 동북지역의 유적을 조사하는 등 왕성한 고고학 조사를 통해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고조선문화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강상·루상 적석묘는 고조선이 노예제사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 여겨졌다

50·60년대 북한고고학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형동검, 협봉동모, 세문경, 수레부속품 등의 청동기와 철제 무기류 및 공구류를 기원전 3세기 이후 성립된 고조선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서북부 및 요동지역에 존재하였던 미송리형토기를 사용하던 집단의 일부가 비파형동검을 사용했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었다.⁷⁸⁾ 이후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 유역 일대의 청동기문화는 부여 및 고구려 사람들의 선조가 남긴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기되고,⁷⁹⁾ 청동기-철기시대의 고조선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를 먼저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전형비파형동검 단계(기원전 8~7세기) - 변형비파형동검 단계(기원전 7~5세기) - 초기세형동검 단계(기원전 5~4세기)의 변천안을 구축하였다.⁸⁰⁾ 이러한 변천안은 영변 세죽리 유적과 요동반도 윤가촌 유적의 층위 관계, 토기 및 청동단검으로 대표되는 출토유물의 비교 등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⁸¹⁾ 그리고 이 시기 서북조선과 요동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청동단검, 창끝, 도끼를 비롯한 무기와 도구, 일용품과 치레거리의 형태와 무늬는 모두 비슷하며, 이들의 유적유물 갖추새는 신석기 이래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온 전통적인 문화⁸²⁾로서 중국 황하유역과 장성 및 내몽고 일대의 고대 청동기문화를 달리하는 독특한 문화이기에 문헌에 보이는 ‘조선’ 즉, 고조선문화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76) 리지린, 앞의 책, 1963.

77) 權五榮, 앞의 논문, 1991; 조범중, 앞의 책, 2006.

78) 고고학 및 민족학 연구소,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고고학계가 거둔 성과」, 『문화유산』 1961-4, 5쪽.

79) 리병선, 앞의 논문, 1966-3.

80) 김용간·황기덕, 앞의 논문, 1967; 고고학연구소, 앞의 논문, 1969.

81) 배현준, 「세죽리 - 연화보유형 개념의 출현과 전개 - 해방후~현재까지의 연구사 정리」, 『백산학보』 123, 2022.

82) 구체적으로 이 중 비파형동검, T자형 검병, 검파두식은 요하유역 이북의 내몽골이나 장성지대에서 보이는 청동단검과 분명한 구별되는 특징이다. 선형동부 역시 이 지역의 특징인데, 선형동부의 기하학무늬는 동부뿐만 아니라 비파형동검의 검병, 거울, 방울, 팔찌, 마구류 및 수레부속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하학무늬 전통은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의 무늬에서 찾는다.

〈표 2〉 기원전 천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 편년과 주요 유적(고고학연구소 1969)

단계	전형비파형동검 (미송리형토기)	변형비파형동검 (묵방리형토기 : 그은무늬 갈색토기)	초기세형동검 (무문 갈색토기)
연대	기원전 8~7세기	기원전 7~5세기	기원전 5~4세기

2. 70년대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의 고조선문화를 ‘미송리-강상시기(기원전 8~7세기)’, ‘묵방리-루상시기(기원전 7~6세기)’, ‘이도하자시기(기원전 5~4세기)’로 각각 변경하였다. 한편 기원전 3~2세기의 후기 고조선문화는 줄곧 고조선문화로 여겨지던 평양 중심의 서북한지역 세형동검 관계 유적유물이 아니라 이전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소위 연계 철기와 명도전 유적으로 대표되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⁸³⁾

이상의 철기문화로 대표되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설정은 이전까지 명도전, 포전, 반량전 등 중국계 화폐가 출토되는 유적에 대해 연나라로 대표되는 중국인이 남긴 것으로 보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죽리-연화보유형의 유적들은 청천강 유역을 남쪽 경계로 하고, 요하유역을 서쪽 경계로 하는 분포 지역을 가지는데, 이들은 거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기원전 5~4세기 이도하자 시기의 유적·유물을 계승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청천강 이남의 세형동검문화를 고조선문화에서 분리하여 진국-마한 문화로 명명하였다.

〈표 3〉 기원전 천년기 고조선문화(리순진·장주협 1973)

단계	미송리-강상시기 (전형비파형동검)	묵방리-루상시기 (변형비파형동검)	이도하자시기 (초기세형동검)	세죽리-연화보유형
연대	기원전 8~7세기	기원전 7~5세기	기원전 5~4세기	기원전 3~2세기

이는 아무래도 기원전 3~2세기 평양지방과 그 이남의 여러 지역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세형동검 관계 유물이 아직까지 청천강 이북의 고조선지역에서 나온 사례가 없고, 을자형 동구나 권총형의 수레명에대끝 같은 독특한 수레부속품이나, 평양 이남에서 다수 보이는 세문경 등 역시 기원전 3~2세기 세죽리-연화보유형 지역에서는 나온 사례가 없어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할 수 없기에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기원전 3~2세기의 고조선문화에서 특징적인 쇠단검, 쇠창, 쇠과, 쇠괘이 같은 철제 도구와 무기, 명도전 같은 화폐, 승문 회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죽리-연화보유형의 유적들은 대체로 청천강 유역 일대를 계선으로 하고 그 이남의 지역들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청천강을 경계로 고조선과 진국(마한)의 영역을 구분하는 견해는 이후 수정이 이루어지는 데, 70

83) 리순진·장주협, 앞의 책, 1973.

년대 후반에는 청천강 이북의 세죽리-연화보유형과 청천강 이남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형동검문화를 모두 고조선문화로 포함시킨다. 이는 세죽리-연화보유형과 세형동검문화 간에는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도 존재하기 때문인데, 두 문화 유형 모두 기원전 3세기 이후 토광묘가 주를 이루다가 목곽묘로 발전되며, 세죽리-연화보유형의 ‘호류(壺類)+심발형토기’가 세트 관계는 세형동검문화에서 기원전 2세기 이후 ‘단경호+화분형토기’ 세트와 연결되는 점을 강조한다.⁸⁴⁾ 그리고 세죽리-연화보유형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무기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발달된 철기문화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세형동검문화는 변강지역이기에 중심지보다 철기문화가 다소 늦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⁸⁵⁾ 고조선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90년대 대동강문화론을 주창하기 전까지 북한고고학계의 기본 인식이 된다.

V. 맺음말

이상으로 해방후 50~70년대를 중심으로 북한고고학계에서 진행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설정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고조선문화의 구축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록 북한고고학계의 당시 청동기·철기·고조선문화의 편년 구축과 문화상 파악이 현재의 시선으로 보자면 논리적 비약 및 오류가 적지 않을테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나름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제강점기의 금석병용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고조선문화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국내 여러 학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일제 어용학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북한고고학계 역시 고고학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경향이 다분하며,⁸⁶⁾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국사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주체사상이 고조선연구에 관철되었다는 비판⁸⁷⁾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유적유물의 편년에 있어서 유물조합과는 별개로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물이 있는 경우 관련 유적을 모두 동일한 시기로 편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역사시대의 문화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북한의 자료와 연구성과는 결코 배제할 수 없기도 하다. 특히 최근 한국고고학계에서 심화되고 있는 고조선 관련 연구 내용은 북한학계와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점에서 북한학계의 연구성과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배제해야 하는 지 등은 점점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학계의 초기 연구성과를 정리함으로써 남한학계의 연구성과와 접점이 있는 않은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작성되었다. 비록 북한학계의 초기 연구성과를 시간적 추이에

8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앞의 책, 1977.

85)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고조선사·부여사·구려사·진국사(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79, 93쪽.

86) 이선복, 앞의 논문, 1992, 1~8쪽.

87) 權五榮, 앞의 논문, 1991, 25~34쪽.

따라 정리하였을 뿐 비판적 검토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남한학계의 연구성과와 비교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청동기·철기시대의 설정, 고조선문화의 구축 과정 속에서 북한고고학계에서 진행한 연구의 논리적 근거를 중시하며 당시의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향후 심화된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욱,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32, 2011.
- 강인욱,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와 조중고고발굴대-顧頡剛의 자료를 중심으로 -」, 『선사와 고대』 45, 2015.
- 權五榮, 「古朝鮮史研究의 動向과 그 內容」, 『北韓의 古代史研究』, 一潮閣, 1991.
- 김정배 편, 『북한이 본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90.
- 문창로, 「북한의 고대사 인식과 연구경향」, 『한국학논총』 29, 2007.
- 박준형, 「리지린의 북경대학 박사학위논문 『古朝鮮의 研究』의 발견과 검토」, 『선사와 고대』 62, 2020.
- 배현준, 「세죽리-연화보유형 개념의 출현과 전개-해방후~현재까지의 연구사 정리」, 『백산학보』 123, 2022.
- 송호정, 「리지린의 古朝鮮史 研究와 그 影響」, 『문화사학』 44, 2015.
- 이경섭,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단군신화 인식과 특징-리상호와 리지린의 연구를 중심으로 -」, 『선사와 고대』 45, 2015.
- 이경섭, 「북한 역사학계의 고조선 종족집단 인식의 변천과 특징」, 『백산학보』 106, 2016.
- 이경섭,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 『韓國史學史學報』 36, 2017.
- 李基東, 「北韓에서의 古朝鮮 研究」, 『한국사 시민강좌』 2, 1988.
- 이기동, 「북한 역사학의 전개과정」, 『한국사시민강좌』 21, 1997.
- 이기성, 「일제강점기 『금석병용기』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66, 2010.
- 이기성, 「초기 북한 고고학의 신석기·청동기시대 구분」, 『호서고고학』 25, 2011.
- 이기성,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고고학』 14, 2015.
- 이기성,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9, 2018.
- 이기성,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변화와 쟁점」, 『문화재』 53, 2020.
- 이선복, 「북한 고고학사 시론」, 『동방학지』 74, 1992.
- 이정빈, 「朝鮮歷史編纂委員會의 설립과 북한 고조선 연구의 개시(1947~1950)」, 『선사와 고대』 45, 2015.
- 임세권, 「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 『북한의 고대사연구와 성과』,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 장호수, 「북한고고학의 시기 구분론」, 『백산학보』 40, 1992.
- 조범중, 「북한의 고조선사 인식 체계에 대한 고찰」,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I)』, 대륙연구소, 1991.
- 조범중,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4.
- 조범중,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 조범중,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 조범중, 「리지린의 <고조선연구>와 북경대 顧頡剛교수와와의 관계」, 『신라문화』 48, 2016.
- 하문식, 「북한학계의 고조선 연구성과와 과제」, 『고조선사 연구100년』, 학연문화사, 2009.
- 한창균, 「195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3, 1999.

- 한창균, 「196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5, 2000.
- 한창균, 「도유호와 한홍수: 그들의 행적과 학술 논쟁(1948~1950)」, 『한국고고학보』 87, 2013.
- 한창균, 「북한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2013.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우리 나라 고대 종족과 국가 발생에 관한 토론회」, 『문화유산』 1960-1.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 토론회」, 『문화유산』 1960-3.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고고학계가 거둔 성과」, 『문화유산』 1961-4.
- 고고학연구소, 「제2장 기원전 천년기전반기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논문집』 1, 1969.
- 김광진, 「조선에서의 봉건 제도의 발생 과정」, 『역사과학』 1955-8·9.
- 김용간, 「금석 병용기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1958-2.
- 김용간,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금석 병용기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1958-2.
- 김용간, 「미송리 동굴 유적 발굴 중간 보고 II」, 『문화유산』 1961-1.
- 김용간, 「우리나라 금속문화의 기원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1-5.
- 김용간,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민속』 1964-2.
- 김용간, 『금탄리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0집), 과학원출판사, 1964.
- 김용간, 「서북조선 빗살무늬그릇유적의 년대를 논함」, 『고고민속』 1966-1.
- 김용간 외,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 『문화유산』 1958-2.
- 김용간·황기덕, 「기원전 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 1967-2.
- 김용우,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2) 『고고민속』 4,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 김용준, 「사실주의 전통의 비속화를 반대하여-리여성 저 『조선미술사』에 대한 비판(1)」, 『문화유산』 1960-2.
- 김재호,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우리 나라 초기 금속 문화의 원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58-2.
- 김종문, 「세죽리유적 발굴 중간보고」(1), 『고고민속』 2기, 사회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 도유호, 「조선 역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사회가 없었는가」, 『역사과학』 1956-3.
- 도유호, 「조선거석문화연구」, 『문화유산』, 1959-2.
- 도유호, 『조선원시고고학』, 과학원출판사, 1960.
- 도유호, 『지탑리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집), 과학원출판사, 1961.
- 도유호,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60-4; 도유호, 「왕검성의 위치」, 『문화유산』 1962-5.
- 도유호·황기덕,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보고(2)」, 『문화유산』 1957-6.
- 리병선, 「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 청동기시대문화와 그 주민」, 『고고민속』 1966-3.
- 리병선, 「압록강유역에서 철기시대의 시작」, 『고고민속』 1967-1.
- 리순진·장주협, 『고조선문제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3.
- 리여성, 『조선미술사개요』, 국립출판사, 1955.

- 리응수, 「조선 노예시대사 연구」, 『역사 제 문제』 1949-9.
- 리지린, 『고조선 연구』, 과학원출판사, 1963.
- 리지린 외,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고조선사·부여사·구려사·진국사(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79.
- 정백은, 『조선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1957.
- 전주농, 「고조선문화에 관하여 - 토광 무덤 년대의 고찰을 중심으로 -」, 『문화유산』 1960-2.
- 정찬영, 「고조선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0-3.
- 정찬영, 「좁은놋단검(세형동검)의 형태와 그 변천」, 『문화유산』 1962-3.
- 황기덕, 「조선에서의 금속 문화 기원에 대한 토론 - 조선 청동기 사용기의 존부에 관하여」, 『문화유산』 1958-2.
- 황기덕, 「두만강 류역 철기 시대의 개시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3-4.
- 황기덕, 「서부지방 팽이그릇유적의 연대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4.
- 황기덕, 「두만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 『고고민속논문집』 2, 1970.
- 황기덕, 「무산 범의구석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 1975.
- 吉林大學歷史系文物陳列室, 「吉林西團山子石棺墓」, 『考古』 1960-4.
- 佟柱臣, 「吉林的新石器時代文化」, 『考古通訊』 1955-2.
- 王亞洲, 「吉林王清縣百草溝遺址簡報」, 『考古』 1961-8.
- 劉謙, 1960, 「遼寧錦西縣烏金塘東周墓調查記」, 『考古』 1960-5.
- 朱貴,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 東亞考古學會, 「牧羊城 - 南滿洲老鐵山麓漢及漢以前遺址 -」,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二冊, 1931.
- 藤田亮策, 「朝鮮の石器時代」, 『東洋史講座』 18, 1942.
-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
- 浜田耕作·梅原末治, 「金海貝塚發掘調查報告」, 『大正9年度古蹟調查報告』 第1冊, 朝鮮總督府, 1923.

* 이 논문은 2022년 8월 26일에 투고되어,
2022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0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The Setting of the Bronze and Iron Age, and the Understanding of Gojoseon in North Korean Archaeology from 1950s to 1970s

Bae, HyunJoon*

A series of arguments made while advocating the theory of 'Daedonggang Culture' in the 1990s on North Korea's Gojoseon research are currently difficult to accept, but previous research on Gojoseon conducted before then had its own archaeological basis at the time. In particular, in the 1970s, the North Korean academia tried to further refine the historical image of Gojoseon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archaeological research. The purpose was to archaeologically establish the theory of 'Gojoseon is located in the Liaodong area'. In the background, it was possible because archaeological research results such as overcoming 'the Chalcolithic Period' presented by Japanese scholars and establishing the Bronze Age and Iron Age were supported during the 50s~60s. Therefore, it is evaluated that the 50s and 60s were the golden ag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history and archaeology. So,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archaeological research results of that time in order to understand the logical basis for claiming the theory of 'Gojoseon is located in the Liaodong area' in the North Korean at that time.

From an archaeological point of view, this article aims to summarize and review the logical basis of the North Korean archaeological community in the 50s and 70s from the Bronze Age to the perception of Gojoseon.

[Keywords] North Korea, Archaeology, Bronze Age, Iron Age, Gojoseon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earch Fellow

